

# 광양시, 한파속 '빛과 별으로 봄을 여는 광양' 선택 제안

### 고로쇠 약수와 섬진강 벗굴, 제철 미식으로 봄기운 전해

광양시는 백운산 고로쇠 약수와 섬진강 벗굴 등 지역 대표 제철 먹거리를 통해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기운을 느끼고 활력을 더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광양은 매화 꽃망울이 터지고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되며 이른 봄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청정 백운산에서 채취한 '광양 백운산 고로쇠'는 미네랄과 칼륨, 마그네슘 등 영양소가 풍부한 수액으로,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골다공증 개선 효과를 입증받았다. '빼에 이로운 나무'라는 뜻의 '골리수(骨利樹)'에서 유래한 고로쇠는 오랜 세월

건강 약수로 알려져 왔다.

광양백운산 고로쇠는 산림청 지리적 표시제 제16호로 등록돼 있으며, 고로쇠약수 영농조합과 각 읍·면·동 농협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섬진강 벗굴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섬진강 하구에서 자라 '강굴'로도 불리며, 목속에 핀 벗꽃을 닮은 모습에서 이름을 얻었다.

성인 손바닥만 한 크기의 벗굴은 탄력 있는 식감과 깊은 풍미를 지녀 구이·찜·전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으며, 단백질과 아연 등 무기질이 풍부해 제철 보양식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광양시는 고로쇠 약수와 벗굴을 함께



즐길 경우, 절제된 짝조름한 풍미가 조화를 이루며 계절 미식의 매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고로쇠와 벗굴은 광양을 대표하는 제철 먹거리로, 겨울 끝자락에서 이른 봄을 느낄 수 있는 지역 자원"이라며 "한파 속에서도 봄기운을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여행지로 광양을 선택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 진도군, 중장년 1인 가구 가정방문 실태 조사

### 고독사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복지행정 본격 추진

진도군은 1월 21일부터 2월 5일까지 16일 동안 진도읍 중장년층(40~64세) 1인 가구 중 고위험군, 만성질환자,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건강과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정을 방문해 면담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진도군 주민복지과 전 직원이 참여하며 8개 조사반(2인 1조)으로 나누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점검표(체크리스트)에 따라 대상자와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 생활 여건, 사회적 고립 여부 등 위기 요인을 세밀히 파악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는 고위험군, 위험군, 일반군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고위험군과 위험군은 사례 관리 연계,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민간 자원 연계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관찰(모니터링)을 통해 위기 상황의 재발을 예방한다.

아울러, 현장 조사와 함께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복지위기 알림 앱 홍보를 추진해, 주민 스스로 위기 상황을 알리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접근성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 조사는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중장년 1인 가구의 실태를 세밀히 파악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위기의 발견부터 서비스 연계,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앞으로도 중장년층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오재명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월 12일부터 진행한 '2026년 새로운 시작, 군민과의 대화'가 1월 21일 화순읍을 끝으로 13개 읍·면 순회 일정을 모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군민에게 군정 운영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고, 읍·면별로 추진되는 현안사업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군민들이 허심탄회하게 고충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된 질

## 화순군, '2026년 새로운 시작, 군민과의 대화' 성료 군민의 소중한 의견 수렴... 군정에 적극 반영

문에 한정하지 않고 구복규 군수가 현장에서 건의 사항을 듣고 바로 답변하는 '즉문즉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도로포장, 경로당 보수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민원부터 화순군의 미래에 대한 제언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군은 이번 대화에서 수렴된 건의 사항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예산 수반이나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담당 부서의 현장 확인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건의자에게는 처리 결과와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안내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추운 날씨에도 군정에 관심을 갖고 함께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현장에서 들은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밑거름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이번 연두순시 이후에도 사랑방 좌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화순/김종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카메라 뉴스



### 함평군 나산면, 2026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 실시

전남 함평군 나산면은 "지난 21일 나산면 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노인일자리 참여자 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과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 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 ▲근무 중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 방법 ▲활동 시 준수사항 ▲기본 소양 교육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나산면 파출소의 협조로 실제 활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위험 요소와 대처 방법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 장흥 회진면, 이웃돕기 성금 기부 잇따라

장흥군 회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장찬석·이민호)는 지난 21일 회진면 다목적홀에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서는 회진면 면민회(회장 이민호)가 200만 원, 건호건설 주식회사(대표 차정민)가 200만 원을 각각 기탁하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회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장찬석 공동위원장은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더불어 잘 사는 회진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제공



### 영광군, 2026년 축산분야 지킴 시달회의 개최

영광군은 지난 21일 영광군청 별관 2층 소회의실에서 읍·면사무소 축산업무 담당자와 축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축산분야 지킴 시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6년도 축산분야 주요 정책방향과 세부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축산농가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실무지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읍·면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설명과 질의응답이 함께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축산업무는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킴 시달회의를 통해 읍·면 담당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축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